

# 尹·韓 3시간 회동... 韓 “장관이 차관 추천”에尹 ‘공감’

### 지난 2일 샌드위치 만찬...국정 방향, 조각 심도깊은 대화 장제원 “한 전 총리 삼고초려...개혁 꿈 이루려 수락한 듯”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새정부 초대 국무총리 후보자로 내정된 한덕수 전 총리가 2일 저녁 회동을 갖고 이후 장관, 차관 등에 대한 논의를 한 것으로 알려져 조각에 가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두 사람 회동에 배석한 장제원 당선인 비서실장은 3일 서울 통의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사무실로 들어가며 취재진들과 만나 “두 분이 한 3시간 정도 국정 운영 방향과 전반적인 조각에 대해 심도 있는 대화를 나누셨다”고 밝혔다.

장 실장에 따르면 윤 당선인이 한 전 총리에 “삼고초려”했다고 한다. 세번 이상 찾아 간곡하게 총리 후보자로 요청했으며 세번째 만났을 때 한 후보자는 “다른 분을 꼭 찾길 바란다”고 했다고 장 실장은 전했다.

장 실장은 자신의 느낌을 전제로 “(총리 후보자로) 수락을 하신 게 다 못 이루신 개혁에 대한 꿈인 것 같다”며 “그런 것들을 참 차분하게 잘 추진하실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한 전 총리께서) 총리가 장관을 (제청해 당선인이) 지명하고 그 장관 지명자에게 차관을 추천받는 방식으로 하면 공직사회가 굉장히 분위기가 좋아질 거다. 그러니 인사권자가 좀 더 책임을 장관에게 주면 훨씬 더 팀워크가 만들어져서 활성화될 거다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오랜 공직 생활 동안 자신이 바라던 바를 착실하게 이뤄 나갈 포부가 있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

윤 당선인은 이러한 한 전 총리의 생각에 대해 깊은 공감을 표했다고 한다.

장 실장은 “당선인이 장관에 책임과 권한을 주겠다고 하지 않았다. 그런 부분에서 공감하고 계신 게 아닌가. 그래서 당선인은 장관 지명이 끝나면 차관 인사라든지 잘 의논해 자신에게 보고하라 지시하셨다. 총리(후보자)님의 생각이 당선인에게 잘 전달된 걸로 보인다”고 했다.

장 실장은 장관 후보자에 대해 현재 검증 동의를 받아 검증 중이며, 결과가 나오는 대로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부조직개편과는 별개로 이뤄진다는게 장 실장의 전언이다.

장 실장은 한 총리 후보자가 나이가 많다는 우려에 대해선 “통합, 외교, 경제, 통상 등을 관동할 시간이 필요하지 않았겠다. 언론이 후보자를 좁혀나갔다. 한덕수 후보자가 공통분모였다”며 “왜 그랬을까. 언론이 봤을 때도 경제, 외교, 통상, 통합이라는 새정부의 키워드를 관통하고 상징적으로 보여줄 사람이 한덕수 전 총리밖에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마평의 교집합이었지 않나”라고 답했다.



다. 그러면서 “저는 언론과 함께 검증하며 총리를 탄생시켰다고 생각한다”며 “연세는 경

륵이다. 모든 분야에서 전문성을 가지기 위한 그 세월 없이 어떻게 경륜을 쌓았나”라고 덧붙였다. 최이슬기자

## 안철수 “총리는 선발투수...누가 되든 역량 발휘 여건 만들것”

### “인수위 역할은 국정 청사진 정리하는 것”



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위원장은 3일 윤석열 정부 초대 국무총리에 한덕수 전 총리

가 내정된 것과 관련해 “선발투수(총리 후보자)가 마음 놓고 역량을 발휘하도록 제대로 된 여건을 잘 만들고 정리하는 것이 인수위의 역할”이라고 밝혔다.

안 위원장은 이날 서울 통의동 인수위 사무실로 들어가며 취재진과 만나 “첫 총리는 야구로 따지면 선발투수와 같지 않나”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인수위 역할은 어떤 분이 총리로 지명되든 국가가 나아갈 청사진을 만들어서 정리하는 것”이라고 했다.

안 위원장은 이날 오전 경남 사천을 방문, 공군훈련기 KT-1 충돌 사고로 순직한 조종사 빈소를 찾아 조문했다.

그는 “참 비극적인 일”이라며 “다시는 이런 비극이 일어나지 않도록 정부는 원인을 철저히 규명해 재발 방지책을 세워야만 한다”고 했다.

이어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치신 분들에 대해 국가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예우를 해드리는 게 마땅하다”며 “새롭게 출발할 정부에서도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와 희생자 예우에 대해 신념을 갖고 추진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선욱기자

## 민주당 광주, 공관위원 명단 논란끝에 최종 비공개...“청탁·로비 무관용”

### 오늘부터 7일 자정 까지 공천신청자 접수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은 공개여부를 놓고 논란이 있었던 공관위원 명단을 최종 비공개하기로 했다.

3일 민주당 광주시당에 따르면 공직선거후보자추천관리위원회(이하 공관위)는 지난 1일 첫 회의를 열고 공관위원 명단 공개 여부를 심층 논의한 결과, 비공개하기로 결정했다.

민주당 광주시당 김종구 공관위원장은 “공관위원 명단공개와 관련해 치열한 논의 끝에 비공개하기로 결정했다”며, “공관위가 변호사, 회계사, 청년창업가, 시민활동가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되었고, 지역위원회 등 특

정인물의 추천으로 구성된 것이 아닌 만큼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훌륭한 후보를 공천하는데 최선을 다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만약 공관위원에게 청탁이나 로비를 하다 발각될 경우 경우 무관용 원칙으로 단호히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 광주시당 공관위는 공천신청자 서류 접수를 오는 4일 오전 9시부터 7일 자정까지 진행한다.

공천신청자들은 검증신청을 했던 것과 동일한 사이트에 온라인으로 서류를 접수하면 된다.

앞서 민주당 광주시당 검증위는 199명의 검증신청자 중 136명에 ‘검증적격’ 판정을, 60명에 대해서는 ‘정밀심사 공관위로 이관’ 판정을, 3명에 대해서는 ‘예외없이 부적격’ 판정을 내렸다. 검증위에서 정밀심사 판정을 받은 60명은 공관위에서 후보자 자격을 계속해서 검증 받게 된다.

오유나기자

## 호남신문 광고안내

광고주는 언론 종사자와 더불어 신문산업 발전의 동반자입니다. 한 분 한 분을 소중하게 여기고 단 한 줄의 광고도 감사히 지면에 반영하겠습니다. 믿고 맡겨 주십시오. 여러분의 기대에 신뢰로 보답하겠습니다.

기사제보  
(062)  
222-2580

광고문의  
(062)  
228-2580

## 축하·근조화환 전문점



### 전국 꽃배달 서비스

# 60,000

### 농장직영 광주꽃도매

직통전화 010-2400-7774  
주문팩스 062-946-0053